

# ‘동행세일’ 첫 주말 소비폭발… 아울렛 매출 55% 급증

백화점, 패션·명품 등 판매 신장  
면세품재고 유통에 예상실적 훌쩍  
G마켓·쿠팡 등도 동행세일 동참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매출 타격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시작한 첫 주말, 백화점과 교외 아울렛에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간만에 매장에 활기가 돌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내수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동행세일이 소비심리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특히 패션업체는 큰 폭으로 세일을 진행, 백화점은 상품권 증정 및 금액 할인권 제공하는 등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의 늘리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백화점은 세일 첫 주말 26, 27일 양일간 롯데백화점 판매액은 전년 세일 기간에 비교해 21% 신장하며 1월 코로나19사태 이후 최대 폭으로 신장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교외형 아울렛에는



롯데 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



/롯데쇼핑 26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 현대아울렛 대전점이 정식으로 문을 열자 고객들이 줄을 지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은 인파가 몰리며 55% 신장세를 보였다.

수요 감소로 인하여 특히 어려움이 많았던 여성패션 상품군의 경우 8% 신장하며 4월, 5월 각각 -16% -29% 감소했던 트렌드에서 급 반등하는 추세를 보여줬다.

최근 야외활동이 비교적 늘면서 골프, 아웃도어는 26%, 스포츠 20% 신장하며 양호한 반응을 보이며 전체 남성 패션 상품군 역시 8% 신장했다. 잡화 상품군은 6%, 생활가전 상품군은 12%

신장했다.

신세계백화점도 지난 26~27일 남성 패션 매출은 전년 동요일 대비 10.1% 늘었다. 명품 61.7%, 생활 43.5% 늘었다. 가전의 경우 173.4%로 3배에 가까운 신장세를 보였다.

현대백화점 역시 전 부문에 걸쳐 매출이 늘었다. 특히 해외패션은 36.9%, 골프 28.1%, 아웃도어 16.1%로 크게 신장했다.

해외여행이 어려워져 따라 판매되지 않은 면세품 재고를 관세청에서 한시적

으로 국내에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진행된 면세 명품 대전은 전국 8개 백화점과 아울렛에서 진행되면서 많은 인파가 몰리며 추정치를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보였다.

롯데쇼핑은 프리오피를 포함한 27일까지 53억원의 명품이 판매됐다고 전했다. 준비한 전체 물량의 60%가 소진되었으며 일부 인기 상품의 경우 조기에 판매가 완료됐다.

G마켓, 쿠팡 등 온라인 쇼핑물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온

라인 쇼핑물 ‘가치삼시다 플랫폼’ 등도 동행세일과 함께한다. G마켓·쿠팡·11번가 등 16개 쇼핑물은 ‘동행세일 온라인 기획전’을 통해 최대 40% 할인을, ‘가치삼시다’ 플랫폼에서는 최대 87% 할인해 상품들을 선보인다.

한편, 백화점과 아울렛과는 다르게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로 수혜를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내달 12일까지 이어지는 동행세일 기간 중 28일과 내달 12일 두 차례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는다. 의무휴업일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둘째, 넷째 일요일로 정해져 있다. 마트 특성상 주말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매출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마트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몰 역시 의무휴업일에는 배송을 하지 않는다. 일례로 SSG닷컴이 있다. 대형마트는 앞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도 제외된 바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불법사금융, 이자 연 24%→6%로 제한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불법사금융업자는 수취이자 가 연 6%로 제한된다. 또 연체로 붙은 이자를 대출금액에 포함해 재대출했거나 구두나 계약서 없이 계약체결을 한 경우 모두 무효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상대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등록없이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하고 있는 미등록 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각각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도 제한한다. 기존에는 불법사금융업자라도 최고금리인 24%의 이자수취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얻은 이득은 상사법정이자율 6%로 제한한다.

또 연체이자 증액제 대출이나 무자료 대출 계약의 경우는 무효화한다. 연체 이자 증액 재대출은 연체로 붙은 이자를 대출금액에 포함해 재대출하는 행위다. 예컨대 100만원을 연 이자 20%로 빌려 갚지 못한 경우 연체이자를 포함한 120만원을 재대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등록없이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 벌금을 최고 5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상향한다. 금리를 대부업자 24%, 불법사금융업자 6%를 초과해 수취하는 경우 벌금도 최고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40일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 바젤Ⅲ 최종안 이달 말부터 조기시행

금융위, 15개 은행, 8개 은행지주사  
어려움 처한 중소기업에 자금공급 확대

이달 말부터 15개 은행, 8개 은행지주사가 바젤Ⅲ 최종안을 조기 시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5개 은행, 8개 은행지주사가 바젤Ⅲ 최종안을 조기 시행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바젤Ⅲ 최종안 조기시행을 희망하는 은행·은행지주사를 신청받았다. 그 결과 19개은행 가운데 15개은행, 8개 은행지주사가 조기시행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말 JB금융지주의 광주·전북은행을 시작으로 오는 9월 말 15개사, 오는 12월 말 2개사, 내년 3월 2개사, 내년 6월 말 1개사가 순차적으로

〈금융회사별 시행시기〉

/금융위원회

| 구분     | 2020년 6월 말 | 2020년 9월 말                         | 2020년 12월 말 | 2021년 3월 말 | 2021년 6월 말 |
|--------|------------|------------------------------------|-------------|------------|------------|
| 은행지주회사 | JB         | 신한, 우리, KB, DGB, BNK, 농협           |             | 하나         |            |
| 은행     | 광주, 전북     | 신한, 우리, 국민, 대구, 부산, 제주, 경남, 농협, 수협 | 산업, 기업      | 하나         | 수출입        |

바젤Ⅲ 최종안을 조기 시행한다.

조기 도입을 신청하지 않은 SC·씨티은행과 카카오·케이뱅크는 오는 2023년 1월부터 바젤Ⅲ 최종안을 시행한다.

바젤Ⅲ 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 부도 시 금융사의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이 위험가중자산 산출 시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하향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은 신용평가를 통해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대부분 등급이 없다. 이 경우 위험가중치가 높아 그에 맞는 자본을

축적해야 하는데, 위험가중치가 낮아져 은행의 자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기시행으로 은행과 은행지주사들의 BIS자기자본비율을 상당폭 상승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위험가중자산 기준 가중평균을 추정해 결과 은행들은 평균 1.91%포인트, 은행지주회사들은 평균 1.11%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기시행에 따른 BIS자기자본비율 상승으로 자본여력이 확대될 수 있게 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 등 실물경제 지원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일부 與 의원들, 검찰 기소강행 공개압박

〉1면 ‘한숨 돌린 삼성…’서 계속

삼성 변호인단도 수사심의위가 마무리된 직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이 기업활동에 전념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문제는 검찰측의 향후 대응이다. 일단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은 심의 후 수사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선 수사심의위에서는 8번이나 결정을 따랐지만, 이번에는 불복하고 기

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검찰을 지지하고 나섰다. 수사심의위 결정에 불복해야 한다고 기소를 강행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것.

만약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다면 이 부회장은 또다시 오랜 시간을 법원에 출석하며 사실상 경영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수사심의위 결정을 보면 검찰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작업 개입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보다는 ‘재벌 망신주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재용 기자 juk@

## 제조업 3분기 체감경기 전망 더 악화

대한상의, 2400개 업체 대상 조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글로벌 팬데믹(대유행) 확산 장기화로 국내 제조업체들의 3분기 체감경기 전망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글로벌 수요 감소와 2차 유행에 대한 불안감이 맞물려 수출과 내수 전망이 동반 하락했다. 기업 절반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선 ‘금융·세제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24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직전 분기보다 2p 하락한 55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최저치인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1분기, 55’ 때와 동일한 수치다.

대한상의는 “주요국들이 경제활동 재개에 나섰지만 코로나가 재확산 기미를 보이면서 수출길이 좁아져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진정세를 보이던 국내에서도 n차 감염사례가 늘면서 2차 유행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은행대출과 회사채 발행으로 버티는 기업들도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극심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체감경기전망은 모두 하락했다. 3분기 수출기업의 경기전망지수는 직전 분기보다 1p 하락한 62, 내수부문은 3p 하락한 53을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매출의 등락폭’에 대한 예상은 평균 -17.5%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의 체감경기 기준치를 밑돌았다.

미국·유럽 등 수출시장에서 고전 중인 ‘조선·부품’과 ‘자동차·부품’, 중국의 저가수출이 예상되는 ‘철강’, 경기 영향이 큰 ‘기계’ 부문은 50을 밑돌았다. ‘의료정밀’, ‘제약’ 부문은 K-방역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타업종 대비 높게 나타났다. /양성운 기자 ysw@